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Chungcheongbuk-do Council on Social Welfare
신문광고문의 : (043)234-0840~2
FAX : (043)234-0849 E-mail : cpcsww@chol.com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302호

충북사회복지
CHUNGBUK SOCIAL WELFARE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SSN 충북하나센터
복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역정착센터입니다.
TEL : (043)238-0840~1 FAX : (043)238-0842
E-mail : cpcsww@chol.com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302호

제 232호 대표전화 (043)234-0840 2018년 8월 28일 (화요일)

73주년 맞은 광복절 73주년 광복절 경축행사가 15일 청주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 가운데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삼창을 외치고 있다.

지역특성별 맞춤형 자살예방대책 수립

지난 5년 간 자살자료 분석
정부, 서울조사 마무리 뒤
충북 · 충남 · 강원 조사시작
내년완료 담당자에 정보제공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자살사망자에 대한 정밀 면사자료(2013~2017년) 분석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완료돼 해당 구청에 결과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7월 31일 밝혔다.

정부는 자살사망자의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결정 기록을 바탕으로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5월 서울에서 분석을 시작했으며 현재 경찰서 31곳 가운데 18곳에서 조사가 마무리됐다.

분석 결과의 민감성을 고려해 결과보고서는 해당 구청의 자살예방 관련 업무담당자에게만 제공된다.

이 자료는 기존의 자살통계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마음단위(읍면동) 자살특성(원인 · 수단), 지역 · 외 거주 여부, 정확한 사망 장소 · 빈발지점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정부는 서울에서의 조사를 8월까지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충남과 충북, 강원 등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서 조사를 시작한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시 · 군 · 구에 제공한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각 지자체에 최대한 빠르게 제공해 지역의 자살특성을 고려해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기탁

SK하이닉스, 종합복지관 등 12개소에 AED 지원

SK하이닉스는 16일 시청 접견실에서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AED) 12대(3000만원 상당)를 청주시(시장 한범덕)에 기탁하였다. 이날 기탁식에는 한범덕 청주시장, SK하이닉스 이일우 청주경영지원실장, 김종태 사회공헌팀장,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영석 회장, 백은기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기탁된 자동심장충격기는 충북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이용자가 많은 복지관과 장애인생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12개소에 설치하여, 시설 내 심정지 환자 발생시 초기대응에 활용된다.

또 응급환자 대처요령과 CPR, AED 사용법 교육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 이일우 청주경영지원실장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사회복지시설에 설치하여 취약계층의 생명지킴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의 이웃과 함께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만큼 기업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더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의 행복나눔기금을 통해 행복

청주시와 SK하이닉스가 시청 접견실에서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AED) 기탁식을 가졌다.

Plus 영양도시락, 희망등지 공부방, 디딤씨앗뱅장, Do-Dream(장학금), 행복 GPS(지역노인을 위한 배회감지기), 행복나눔 꿈의 오케스트라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충북도, 저출산 극복 릴레이캠페인 실시

충북도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저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충북도는 3일 충주시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일원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저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저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은 기존에 출산을 직접적으로 장려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결혼 · 출산에 장애가 되는 사회문화와 가족문화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인식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도내 전 시 · 군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옥천 지용제'(5. 10~13), '음성 품바축제'(5. 23~27)를 시작으로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와 연계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충주호수축제'(8. 1~5)와 연계하여 진행된 이번 '저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은 충북도 충주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충주시 새마을회 등의 기관 ·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임신 · 출산 · 육아 지원정책 홍보 리플릿 배포, 남성육아분담 및 일 · 가정 양립 실천 홍보 캠페인(가두행진), 홍보 풍선 나눠주기, '저출산 극복' 나의 한줄평 쓰기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냈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옥천 지용제, 음성 품바축제의 충주호수축제에 이어 내려지 8개 시군의 대표 문화축제장을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지역 사회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함께하는 충북 범도민 추진위' 3기 출범

13일 위원위촉… 도민 가치공유 · 역량결집 역할기대

'함께하는 충북 운동'의 민간 중추기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함께하는 충북 범도민 추진위원회' 3기가 새롭게 구성돼 13일 출범했다.

'함께하는 충북 운동'이란 도민들의 가치를 공유하고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방안이다.

충북도는 이날 청주시 문화원 도청 소회의실에서 3기 출범과 더불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함께하는 충북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4년 3월 처음 17기 위원회가 발족돼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발전방안 제시, 지역현장방문, 범도민 확산 토론회 등 '함께하는 충북 운동 확산을 위한 민간 주도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3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해 각 분야의 위원들이 지식과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추진된 '함께하는 충북운동'의 성과 보고와 3기 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2018 사업계획(안)을 주요 안건으로 진행됐다.

또 참여 위원들은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한 과제와 3기 위원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청주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70% 마무리

노인복지관 4곳 · 4억1000만원 투입… 보강 · 확장사업

청주시는 지역 노인복지관 4곳(청주, 상당, 내덕, 가경)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70%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 4억1000만원을 들여 모는 10월까지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7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은 1층 로비를 리모델링해 휴게공간으로 조성했고, 노래방 · 사워실 · 체력단련실도 확장했다. 내덕노인복지관은 옥상 방수공사, 강당 및 프로그램실 환경개선 공사가 마무리됐다. 하반기에는 그라운드 골프장 락커룸도 설치된다. 상당노인복지관은 미끄럼방지 환경개선, 창문교체, 지붕 출입문 교체 등으로 시설 편의 · 안정성을 높였다. 가경노인복지관은 경로식당의 냉장고를 구입이 완료됐고, 하반기에는 외부 창고 증축공사에도 들어간다.

제천경찰서 전국 첫 긴급호출기 배포

버튼 누르면 현재위치 · 현장상황 녹음파일 자동 전송
핸드폰 뒷면에 간단 부착… 실종예방 · 약자 보호 기대

제천경찰서가 여성안전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 SOS 호출이 가능한 '스마트 안심 티처'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에 제작된 '스마트 안심 티처'는 전국 최초로 핸드폰 뒷면에 부착하는 에세서리로 초소형 홈음파 폴딩 모듈을 활용한다.

긴급상황 발생시 '스마트 안심 티처' 버튼을 3~5초간 누르면 사전에 설정된 전화번호로 현재위치와 현장 상황 녹음파일이 전송된다.

설정 전화번호는 최대 5개까지 가능하며 112번으로 설정하면 경찰시고가 접수돼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다.

이런 기능을 통해 범죄로부터 여성안전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스마트 안심 티처' 사용자간에는 미리 설정된 영역을 벗어나면 보호자가 알람음 발을 수 있어 실종예방도 가능하다.

기존 긴급 SOS 호출 시스템은 블루투스 · NFC 같은 폰신 페어링이 필요하고 핸드폰 장금해제에서는 작동불가, 오작동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제천경찰서 직원이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작한 긴급 SOS 호출이 가능한 '스마트 안심 티처'를 선보이고 있다.

반면 '스마트 안심 티처'는 블루투스 · 와이파이 기능 없이도 작동되고 핸드폰 장금해제 기능이 있어 오작동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전국 경찰청장에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효섭 서장은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제천시민의 안전을 위한 경찰활동에 적극 활용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여성 · 노인 ·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책 읽는 습관, 떡잎시절부터 기르자"

청주청원도서관 어린이집 · 유치원 원아 대상 체험교실

청주청원도서관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도서관 체험교실은 도서관 시설 소개, 자기대출반납기 사용방법, 도서관 이용 및 기본예절 등 도서관 정보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선생님들이 알기 쉽고 친절하게 지도할 예정이며, 동화구연 및 독서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체험교실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과정으로 청주청원도서관 1층 아동자료실 내 요자열람실에서 최대 25명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주말과 방학기간 중에는 도서관 이용자 중주로 일시 중단한다.

이를 계기로 유아 및 어린이들이 도서관에 친밀감을 갖고, 독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스럽게 도서관을 방문하며 각종 지식 및 정보를 얻어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은 청주청원도서관에 전화로 신청하고 예약된 날짜에 방문하면 된다.

청주 · 진천 다문화가족 459가구 실태조사

경제생태 · 교육지원 등… 정책기초자료 사용

충청지방통계청 청주사무소가 9일부터 30일까지 '2018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청주시와 진천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459가구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 조사한다.

조사를 통해 경제상태, 가족관계, 생활양식, 가족문제, 교육지원 등에 관한 현황 · 실태를 파악해 다문화가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세부적으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본인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결혼생활, 가족관계, 자녀양육, 경제활동 등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경제상태, 가족관계, 생활양식, 가족문제, 교육지원 등에 관한 현황 · 실태를 파악해 다문화가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세부적으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본인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결혼생활, 가족관계, 자녀양육, 경제활동 등을 조사한다.

경제활동 등을 조사한다.

청소년 자녀 대상으로는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국적취득, 정서 및 사회생활, 진로 및 교육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사한다.

청주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비밀이 엄격히 지켜지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전혀 이용되지 않는다"며 "조사대상 가구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여름방학, 도서관서 자기계발 해요"

제천시립도서관 독서교실 · 의병학생교실 운영

제천시립도서관(관장 경갑수)이 어린이 ·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각 '독서교실'과 '의병학생교실'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독서교실 프로그램은 도서관 이용법과 '소년, 단종에 대한 독서 및 화이트, 연극 연말놀이 등으로 구성돼 있고 의병학생교실은 '의병 감의', '자랑 영당 탐방'등을 통해 지역의 명소와 역사에 대한 관심을 증대 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제천시립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어린이 · 청소년의 독서 문화함양과 자기계발 기회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다.

1일부터 운영돼 초등학생 대상 여름방학특강에서는 그림책꽁 방, 영어쉬구 등의 내용으로 개인의 독서 역량을 증대시키고 다채로운 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했다. 방학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참조하거나 시립도서관 열람실로 문의하면 된다.

경갑수 관장은 "도서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 들이 유익한 경험을 쌓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며 "도서관 이용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과 종요성 또한 발견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9월 1일 '치매극복의 날'

충주시가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을 맞아 오는 9월 1일 충주세계무술공원에서 제11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및 전기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치매극복의 날은 가족과 사회의 지매환자 돌봄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알츠하이머병협회(ADI)가 1966년 지정했다.

이번 행사는 치매 극복을 위한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와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충북도내 14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및 유관기관, 단체등이 함께 참여한다.

1 · 2부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참여 기관 · 단체는 도민들에게 치매예방에 대한 정보와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충주시 결식아동 3,096명에 급식 지원

1식 4천원 급식카드 지급… 지역 아동센터와도 협조

충주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3,096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가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아동은 수급자가구, 한부모가구, 보호자의 부재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 저소득 맞벌이가구 등이다.

시는 이들 외에도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된 아동들에게도 아동급식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들이 쉽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식당, 마트, 편의점 등 244개소 가맹점을 확보했으며, 36개 지역아동센터와도 협조해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인 여성청소년쉼터공은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발굴에 최선을 다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충주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급식 지원대상 아동들에게 1식 4,000원의 급식카드(꿈자라 랩카드)를 지급한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 영 석 편집위원장 박 상 준 편집고문 겸 주필 김 춘 길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광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1층
전화 : 043-234-0840 팩스 : 043-234-0849
E-mail : cpcsww@chol.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진천군, 2018 생활 속 규제개선 군민 공모

취업 · 군민복지 · 안전 등 7개 부문… 9월 4일까지 접수

진천군이 내달 4일까지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2018 진천군 규제개선 과제 군민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 대상 과제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군민 생활 및 안전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서 취업 · 일자리, 군민복지, 일상생활, 군민안전, 시상업, 창업 · 벤처 · 기업, 교통, 생산 · 유통 · 판매 등 7개 부문이다.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에 애로사항에 대해 관심있는 기업 또는 단체, 군민 등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부문에 응할 경우는 진천군청 홈페이지 공고안에 게시되어 있는 신청 양식(공모 제안서)를 작성해 이메일(picaccio@korea.kr)로 접수하거나 방문 및 우편 총독 진천군 진천읍 상신로 13, 진천군청 기획감사담당(전기계획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우수 제안은 오는 10월 중 시상 할 예정으로,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의 선정작에 대해 진천시장상패 과 50만원, 30만원, 10만원의 부상을 상장과 함께 수여할 예정이다.

군은 선정된 제안을 진천군 규제개혁위원회 내 내부 심사절차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 및 공모부처에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규제혁신은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과제 발굴이 우선되야야 하므로 이번 공모에 군민, 기업 및 단체가 야정 어떤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이를 기회로 군민 생활 및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정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천군 무더위 복지사각지대 발굴

저소득 빈곤계층 · 장애인 · 1인 가구 등에 냉방용품 지원

진천군은 14일까지 폭염 대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했다.

중점 발굴대상은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빈곤계층, 독거 노인 등 1인 가구, 장애인 가구등이다.

이 기간 중에는 읍면별로 독거 노인 등 1인 위기 가구 250여가구에 안부 전화를 통해 안전 확인을 실시하고, 빈곤이력을 활용하여 단전, 단수건강보험료 체납등 의 위기 사유가 있는 79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적극적 · 선제적 복지를 추진했다.

또한 쿨 스카프 등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폭염에 따른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여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했다.

뿐만 아니라 읍 ·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좋은 이웃들 등 지역사랑을 잘 갖고 실상생활 중 위기가구를 발견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으로 구성된 복지인적전문망을 통해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나 발지 못한 고립 · 은둔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7월 푸드뱅크 · 푸드마켓 식품기부자 명단

– 푸드뱅크는 소외계층을 위한 식품 나눔 은행입니다 –

● 충북광역푸드뱅크
(주)에스엔에스, 디스인 진천센터, 디모리에일 발인쿨폴센터, 롯데칠성 경영센터, CJ나눔 제품센터, CJ수원물센터, 대상 양지본센터,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농협, 충북식품농협, 나눔축산유통본부, 충청캔드, 한우협회, (주)파리크, (주)대슈투스, 롯데푸드, 씨리부프, CJ푸정(충청캔), 삼립푸드, 정주유통, 에버리치, CJ서산 덕평센터, 롯데칠성 대전센터, 중앙개관(주), 롯데대슈퍼, 정주공장, LG생활건강, (주)캠프드림, 송원푸드, 대상 익명센터, 사이스 정주공장, 명동빵집 무지개동장, (주)지엘이, (주)피아이에푸드, (주)금강&F, KGC인삼공사 송북지점, 푸르밀에이스, 창양식품, 파리엘에스

● 청주중앙기계푸드뱅크
동양요츠카충청정주지점, 롯데제과주정주연합법인, 미원보명, 삼양사 충북공장, 미원에스에스, 사이스 정주공장, 명동빵집 무지개동장, (주)제일중고, 이노보명, 홈플러스충북점, 홈플러, 개신점, 수정교 영업이익인, 홈런마킹 오송점, 서문우동, 용암서문주점, (주)제과중고, (주)한국, 홈플러 이주점

● 청주제일푸드뱅크
청주제일교회, 한기정제지제인, (주)반짝식품, 두레유통 용암

● 청주서원푸드뱅크
홈런마킹오창점, 파리바게트제일점, 두레유통한라점, 두레유통오창단지점, 그린랩인 기흥센터, 오창홈마트, 지상지 민속학교, 할리데이비가지, 행복요직입, 유신뱅행, 파리바게트 한주식일점, 학이일, 두레유통 오창점, 파리바게트 청주유일점, 파리바게트 청주제일점, 명동초컴퍼인 회계홈, 홈프리스, 익스프레스, 청주유일점, 천명명농초컴 법인, 정수기회초생사, (주)월드이상일이이지 지연, 지연에인컴명농초컴법인, 천연, 김가네 생고기정육점, 파리바게트 청주제일점, 주주점, 새울우유지조, 사이스주점, 두레유로 분점, 폭탄정, 지연에인컴명농초컴법인, 용암점, 청주명은주, 두꺼비우유

● 청원기초푸드뱅크
(주)우리농, 신대원제지, 파리바게트 오창공장점

● 중원군푸드뱅크
홈런마킹오창점, 파리바게트용암점, 두레유로한 라점, 두레유로 대전드림, 그린랩인 기흥센터, 그린랩 수서점, 랩수점, 홈런마킹 월사점, 지상지 민속학교, 할리 공항, 광주기독교서점, 전원두드릭, 낙원제방

● 충주기초푸드뱅크
주식회사 시아스, 두레유로 금천점지점, 파리바게트, 본명점, 한솔 제일농업, 굳빈학교, 금관빌딩 마트, 해신수산, 두레유로 금천노리로, 파레오 베이커리, 행복요직입, 유신뱅행, 파리바게트 청주제일점, 하이일, 두레유로 충주점, 파리바게트, 청주유일점이일점, 명농초컴법인 회계홈, 홈프리스, 익스프레스, 청주유일점, 천명명농초컴법인, 정수기회초생사, (주)월드이상일이이지 지연, 지연에인컴명농초컴법인, 천연, 김가네 생고기정육점, 파리바게트 청주제일점, 주주점, 새울우유지조, 사이스주점, 두레유로 분점, 폭탄정, 지연에인컴명농초컴법인, 용암점, 청주명은주, 두꺼비우유

● 청원기초푸드뱅크
(주)우리농, 신대원제지, 파리바게트 오창공장점

● 중원군푸드뱅크
기림기계, GS아파 중원점, 케이아우스, 금호술 불교회, 서신시설, 홈런마킹 월점, 파리바게트 내수점, 한고루시설, 오주기, 더바심시, 연진되시 초 중원점, 엘리켄 중원점, 그린유통, GS25 중원대교점

● 괴산군기초푸드뱅크
진미시설, 괴산정제, 신신스토, 신신촌, 운산식물, 제왕상무국, 월요개발, 사이수, 운산교회, 피에로보에이커리, 두레유로괴산점, 파리바게트괴산점, 서울제과, 미미시설, 한일정축산식품, 주식회사 괴산

● 옥천군푸드뱅크
두레유로 옥천점, 구기대 농어보감, 조마루 감자탕, 독도가드, 행운목, 미가한정식, 이가화로, 옥천성당요리라클럽, (주)월월초.

● 영동나눔푸드뱅크
두레유로리감홀, (주)뱅밀유가공

● 보은군기초푸드뱅크 (T. 543-6255)
세븐무파보은점, (주)시설정보, CJ나눔제인, 롯데칠성정주, 충주, 대전, 오포, 인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회센터, 경주파리크라상업체, 신선도, 하림, 유진스물, 한 · 번데이주, 대상정정점

● 음성군푸드뱅크
CJ푸드빌, 꽃피는아침마을, (주)다농원 상품농장, 영양제일양인기, 김이하이대표, 인간도시초 (금왕), (주)이기지연면, (주)후드림, 김정월초어리재업, (주)팔은세술은, (주)팔우원, (주)팔은식품

● 진천군푸드뱅크
상공로드, 두두주리성모양병원, (주)사랑, 제리부로, 조인, 복우촌, 동행이즈백업, 심퍼두유, 파리바게뜨(덕산점)

● 진천나눔과기쁨푸드뱅크
파리바게트 진천진천점, 태림 메디스트, 신토시설, 윤지명, 김정식, 리뉴지원인두로뱅, 김수원, 엘리켄이일점, 에스엔에드, 지에시설, 명기에집, CJ푸드빌, 해미로푸드서비스, 피스키퍼, 행복한 박빈, 이씨시설, 명기뱅집, 생기전시설, 일한에드원

● 충주기초푸드뱅크
고인돌시설, 대하유통, 엘리켄충주공장점, 워보의류, 두레유로 주미점, 롯데제과(충주)충주영업소, 삼성정자유통, 삼성전자, 서울우유지충주대리점, 유원유통, 씨알푸드, 유사정보, 주미점 농산, CS코리아, X이엔에프(펫푸드충주점), 세븐나라(충주점), 한미충청과

충북도 "일자리 경험으로 직무능력 UP"

지역주도형 '일+경험 청년일자리 사업' 신청 마감
사회복지시설 등 근무… 역량 교육 · 자격증 지원

충청북도는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 '일+경험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6일부터 14일까지 모집 · 마감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7억을 투입해 도내 거주 만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100명의 청년을 모집해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경험하고 민간 일자리로 취·창업할 수 있도록 참여자 직무 및 구직 역량 강화교육,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 지원 등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는 홈타임(주 40시간)과 파트타임(주 20시간)으로 구분 신청이 가능하며 홈타임의 경우 연간 220,500천원을 지원 받는다.

충북도 관계자는 "공공분야에 필요한 청년 인력을 지원하고, 청년들은 실 경험을 통한 앞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연계하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은군 사직리 "외로운 어르신들 말벗 해 드려요"

이장 · 부녀회장 · 새마을지도자 등 봉사활동

2일 탄부면 사직리 마을회에서 이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가 독거노인 어르신 월의 안부를 살피고자 해당 집을 방문하고 있다.

사직리 마을회(이장 유승하)에서는 활기찬 마을을 만들기 위해 이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등 뜻있는 분들이 두어 명씩 조를 이뤄 6월부터 독거노인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있다.

이러한 선행은 독거노인 문제가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꼭 필요한 독거노인들이 마을에도 여러분 계셔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처음에는 말벗이 되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 했다고 한다.

요새는 말벗을 해드리면서 필요한 사람이 있냐고 가끔 여쭈어 봐야겠어 말 지역 행정기관인 탄부면 주민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도움을 주고 있다.

사직리 유승하 이장은 "요즘 매스컴을 통해 독거노인들이 생계곤란, 외로움, 질병 등으로 여러움을 겪거나 쓸쓸히 세상을 마는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면서 우리 마을 또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주민들이 뜻을 모아 홀로계시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있다"며 "어르신들을 한 가족 같이 생각하고 봉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마을에 거주하는 이송자 어르신(78세)은 "시월에 나가있는 자녀들이 본인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위 자주 방문을 못하는데주 월, 수, 목요일 마다 식사를 거르기 쉬운 어르신들을 위해 매일매일 식사 당번을 정해 사직리 경로당 2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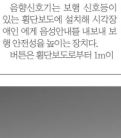
' 경로당 순회 통합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보은군 노인 · 장애인 복지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한화 직원들 봉사 참여… 의료서비스 · 재능나눔 등

보은군노인 · 장애인복지관(관장 박미선)은 7월 27일 보은군 내북면 아곡 · 용수리 경로당에서 아곡 · 용수리 일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경로당 순회 통합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날 진행된 경로당 순회통합 서비스 행사는 ㈜한화 보은사업장의 지원을 받아 보은군노인 · 장애인복지관의 주관으로 ㈜한화 회보은사업장, 보은군청 희망복지지원팀, 내북면행정복지센터, 보은군보건소, 보은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보은군시각장애인연합회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아곡 · 용수리 및 근거리 일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아곡 · 용수리 경로당 내 · 외에서 종합상담 창구, 방문의료서비스, 재능나눔봉사활동(수지침, 네일아트) 등의 의료 · 여가 · 일상생활 서비스 전반을 제공하기 위한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한화 보은


경로당 순회통합서비스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장의 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원활하게 실시되었다.

이날 ㈜한화 보은사업장 임직원들은 마을 인근 지역을 순회하며 환경미화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보은군청 희망복지지원팀, 내북면행정복지센터, 보은군노인 ·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은 내북면 거주 주민 중 생활상의 다양한 욕구 및 문제를 호소하는 가정 9곳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진행과 물품작성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회의를 진행하였다.

보은군노인 · 장애인복지관 박미선 관장은 "농촌지역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일상생활 영위와 보은군 내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옥천군 금구리 일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옥천군은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편경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설치한다.

1일 군에 따르면 유동인구가 많은 옥천읍 금구리 일원(매일약국 시거리)에 사업비 6천만 원을 투입해 음향신호기 8대를 9월 3일까지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한다.

음향신호기는 보행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설치해 시각장애인 예게 음성안내를 내보내 보행 안전성을 높이는 장치다.

버튼은 횡단보도로부터 1m이내 지점 지상으로부터 1~1.2m 높이로 각 신호등에 설치된다.

안내음성은 보행자가 버튼을 누를 경우 횡단보도 신호상태에 따라 자동적으로 안내되며 녹색 또는 녹색점멸 시에는 다음 신호를 기다리도록 대기 메시지가 안내된다.

"잠자는 물건 기부"… '맞춤형 행복이음터'

영동읍, 사용 안하는 가전제품 등 취약계층 기부사업 '인기'

영동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영동읍 맞춤형복지팀과 함께 지난 4월부터 맞춤형복지서비스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맞춤형 행복이음터'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특화사업은 지역 · 가정 에서 배출되는 재사용 가능한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을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관협력을 통해 저소득주민 등 농촌지역 지원의 부족한 현실에 맞춰 효율적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까지 62건을 접수하여 사각지대 발굴대상자와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41건을 지원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의 중견 기업체와 단체 등에서 냉장고 4대, 선풍기, 전기밥솥, 유아용품, TV, 가구류 등 다양한 물품을 기탁했으며, 주민들의 후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물품들은 무의탁 노인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저활사업참여자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졌다.

특히 무리운 여름철을 맞아 선풍기, 전기밥솥 등의 경우에는 공급이 부족하여 즉시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영동읍 맞춤형복지팀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지역자원을 발굴할 계획이다.

안치은 영동읍장은 "지역특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동군보건소 '식품첨가물 바로알기' 아동 영양교육

지역아동센터 이동 249명 대상 '가공식품 유해성분' 알려

충북 영동군은 지난 7월 24일부터 16일까지 관내 11개소 지역아동센터 이동 2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양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군 보건소는 어동기의 바른 시생활 인식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첫걸음으로 구강보건 프로그램과 연계해 영양교육을 실시했다.

'식품첨가물 올바르 알아요' 란 주제로, 내가 좋아하는 과자 · 빵 · 음료수 등 각종 가공식품 속에 첨가물이 있기 시생첨가물이 하는 일, 식품첨가물의 종류와 사용하는 이유 알아보기, 식품포장지에서 식품첨가물 찾기, 식품첨가물 올바르게 알고 건강하게 먹기 등의 유익한 프로그램이 진행했다.

특히, 식품 속 첨가물 찾아보기 체험은 가공식품 뒷면에 식품첨가물 표시가 어렵고 생소한 단어들이라 좋은 성분인지 나쁜 성분인지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아동들이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꼼꼼한 교육이 이뤄졌다.

한 아동은 "좋아하는 초코파자에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어서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고민"이라며, "포장지 뒤에 식품표시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것에 놀라며 방학이 끝나면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교육의 육구가 갈수록 과도한 학업에 시달리며 시간에 쫓기다 보니 패스트푸드, 가공식품을 섭취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군은 이러한 시점에 교육을 통해 아동들이 가공식품 속 첨가물 위해성을 바로 알고 올바르게 섭취해 건강한 지역사회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평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 "소화기 사용법 배웠어요"

이용 · 센터직원에게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실시'

증평군은 2일 증평읍 신동리에 위치한 행복이 가득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 및 센터 직원 5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 강사로 나선 증평소방서 오동재 소방교는 재난상황 등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과 소화기 및 소화전 활용법, 심폐소생술 등에 대해 가르쳤다.

특히 센터 아이들은 직접 소화기 등을 사용해보며 안전시고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익혔다.

한편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은 증평소방서와의 협조를 통해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과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 불감증 해소를 위해 실시되는 안전훈련이다.

다음달 7일에는 증평지역자동센터에서 올해 마지막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증평군보건소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주민 협조 부탁"

16살~10월 31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기초자료

증평군보건소(소장 김동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지역보건사업 성과평 체계적 모니터링 및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성을 위해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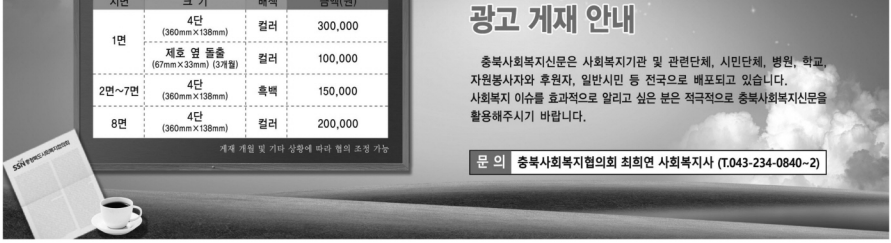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보건국제대학교 의과대학 김형수 교수팀 주관으로 실시되는 조사는 표본가구를 선정해 5227가구를 만들어 세 이상 지역주민 870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는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해 일대일 설문 및 계측 조사방식으로 3월 정도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흡연 · 음주 · 영양 등을 조사하는 건강행태 조사, 당뇨병 · 정신질환 · 사고종독 등의 만성질환 조사, 혈압 · 키 · 몸무게 등 신체계측 조사 등이다.

김동희 증평군보건소장은 "지역보건사업 수행에 적 필요한 지역주민 건강통계"라며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할 때 증평군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찾아가거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내년 3월에 공표되는 이번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의 건강문제 도출과 우선순위 결정의 근거자료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보건사업 추진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의 평가기준으로도 활용된다.



노인 · 장애인, 월 14만원 추가 지원

저소득 노인 · 장애인 생계급여 1만6000명 추가 혜택

1일부터 1만8000명의 저소득 노인 · 장애인이 월 14만원의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 · 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1일부터 확대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30%를 제외(공제)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 · 사업소득에서 먼저 2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 최대 월 14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약 1만6000여 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될 전망이다.

또한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권근권을 일부도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공제 등 제도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지지체의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발대식 모습. (복지멘토뉴스)

복지부, 중증 장기요양 수급자, 갱신절차 '면제'

전체 74% 혜택… 조사 없이 수급 유효기간 연장 가능

중증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8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갱신조사를 면제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장기요양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정책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요양 인정 점수 95점 이상의 수급자를 말한다.

현재는 1~4등급 수급자가 최초 장기요양 인정 이후 계속 급여를 받으려면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심신기능 상태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을 통해 이전 상태가 유지되고, 노인성 질병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만 갱신조사를 생략한다.

그런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경신 경험이 있는 '장기요양 인정점수 105점 이상 1등급'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심신기능 상태나 노인성 질병 확인 없이 갱신조사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갱신을 1회 이상 받은 적 있는 1등급 수급자 3만5423명 중 2만8379명(74.5%)이 별도 갱신절차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갱신조사 면제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나, 심신기능 상태가 개선돼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급변경 신청 안내 또는 재조사를 통해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이번 갱신절차 면제와 관련한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면제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갱신조사 면제 대상임을 안내할 예정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비 지원

오는 31일 정부세종청사 컨벤션센터서 설명회 개최

정부가 전국 2만8000여 대 어린이집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어린이집이 오는 12월까지 차량에 설치해야 하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 · 슬리핑 차일드 체크) 설치비를 일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초 설치비에 한해 일정 지원 상한액을 주고, 나머지는 지자체와 어린이집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장치는 비용과 효율성, 장단점을 고려해 지자체와 아동보호차 와 보육교직원 등이 선택하면 된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벨(Bell),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NFC), 비콘(Beacon) 등 3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벨 방식은 시동을 끈 후 어린이집 차량 운전기사가 뒷자리에 설치된 확인벨을 눌러야 차량 경광등과 클랙슨이 해제되는 구조다.

벨 방식은 설치비가 25만~30만원 가량 들고 학부모 알림 기능은 없지만 고장률은 가장 낮다.

NFC 방식은 시동을 켰다타도 스마트폰으로 차량 내부와 외부의 NFC 단말기를 태그 해야 경보음이 해제된다.

NFC 방식은 설치비 7만원에 유지비가 연간 10만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학부모 알림 기능도 있지만 기술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비콘은 아동이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인 비콘을 가지고 통학버스에 접근하면 장치가 인식돼 학부모에게 스마트폰 알림이 가도록 한 방식이다.

비콘 방식은 설치비만 약 46만원, 유지비는 연간 180만원으로 가장많은 비용이 들고 비콘 분실 가능성이 높다.

잠자는아이 확인장치 어린이통학버스 설치 구성도
어린이집 운영중
어린이집 차량 운행 중
• 어린이집 차량 내부에 NFC 단말기 설치
• 어린이집 차량 운행 중 NFC 태그 불가능
• 어린이집 차량 운행 중 NFC 태그 가능
• 운전기사 소지 스마트폰으로 차량에서 태깅
• 어린이집 차량 운행 중 운전기사에게 경고음 및 문자 발송
• 운전기사 벨 작동
• 어린이집 차량 정지
• 운전기사는 하차하지 않고 차량 내부 확인
• 운행일지 작성
• 어린이집 차량 운행 중 운전기사 소지 스마트폰 분실 시
• 어린이집 차량 운행 중 어린이집 차량 내부 NFC 태그 불가능
• 학부모 알림 가능
• 어린이집 차량 운행 중 어린이집 차량 내부 NFC 태그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성교육뮤지컬

3~5세 유아 대상 올바른 성교육 · 성폭력 예방교육
'알쏭달쏭 숨은 비밀' 공연에 유괴 예방까지 '큰 호응'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8일 청주아트홀 공연을 시작으로 어린이집 내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뮤지컬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무료로 진행되는 본 공연은 2006년부터 매년 스토리를 달리하여 진행하고 있는 성교육뮤지컬로 어린이집 재원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기 연령과 발달을 고려한 올바른 성 인지와 성폭력예방을 중심으로 유아한 내용으로 노래와 율동등 등 질 높은 공연으로 준비하였다.

특히 이번 공연은 '알쏭달쏭 숨은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마법학교를 배경으로 여행을 떠난 주인공 루키가 겪는 모험을 통해 이야기들의 눈높이에 맞춘 성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자존감과 용기를 일깨워주는 판타지 모험극으로 펼쳐졌다.

또한 흥미로운 유아과 율동뿐만아니라 유아들이 직접 공연에 참여해 성교육뿐아니라 유괴예방법 등을 자연스럽게 어릴 수 있도록 구성되어 아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경진 센터장은 "유아들에게 친숙한 캐릭터를 통해 성범죄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줌과 동시에 위험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키우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형성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제미와 교육적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본 공연은 충북전역에서 순회공연으로 진행되어 문화예술이 부족한 시군의 어린이집에서는 유아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아니라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성폭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성범죄 예방법 등을 알려주는 교육적 효과가 뛰어나 큰 기대를 모으게 하는 공연이다.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성교육뮤지컬은 8월 8일, 9일 양일간 청주공연을 시작으로 16일 옥천, 17일 진천, 21일 제천, 23일 증평, 24일 음성, 28일 충주를 끝으로 8,000여명의 유아에게 공연을 지원했다.

목령종합사회복지관–녹십자 주거개선사업 실시

7월 28일 임직원 30명 오창 석우리서 재능봉사

GC녹십자(대표 허은철) 임직원 30명이 7월 28일 목령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오창읍 석우리를 방문하여 재능나눔 봉사활동 'GC녹십자와 함께하는 만수무강 Green Day Ⅱ'를 진행했다.

GC녹십자에 따르면, '재능나눔 봉사활동'은 GC녹십자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일반적인 봉사활동과 달리 임직원 각자의 재능을 활용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재능 기부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GC녹십자와 오창과학단지 아이도 시민연합과 함께 진행한 이번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의 부채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장수사진촬영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주거 공간 개선사업을 진행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은 "평소 사진 찍을 여유가 없었는데, 이러한 좋은 기회가 생겨 손녀들이 종종 아랍 것 같아 행복하다"고말했다. 앞서 지난 4월 14일에도 오창 빛화산리를 방문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실시해 어르신 삶개선에 무료로 장수사진 액자를 선물한 바 있다.

GC녹십자는 임직원과 함께 기부하는 해칠그랜트 제도, 본인 활동을 기증해 불우이웃을 돕는 사랑의 바자회, 급여 끝전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고 있다.

2018 청주시 영유아박람회 개최

아동발달검사 · 캠페인 · 만들기 체험 · 공연 등 진행

영유아 박람회 체험 후 청주시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제8회 2018년 청주시 영유아 박람회가 7월 21일 청주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시소와그네 영유아종합지원청주시센터(센터장 유옥현) 주관으로 열렸다.

청주시 영유아 박람회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대한 주민 인식 변화를 목적으로 지역사회 29개 기관이 함께하여 영유아 가정 및 주민들에게 아동발달검사, 캠페인, 만들기 체험, 공연 등 30여 개의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한범희 청주시장과 충청북도 도의회 장선배의원, 장주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김은숙 위원장 등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영유아 가정들과 함께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청주시 한범희시장은 "영유아는 우리의 미래이며, 영유아와 영유아 가족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려면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2018 청주시 영유아박람회를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 모두가 함께 웃는 청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축사를 남겼다.

유옥현센터장은 "영유아가 건강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사회적 분위기와 관심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영유아 복지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만 0~6세 영유아기정을 대상으로 복지, 보육, 건강,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향상과 부모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거어르신 밑반찬지원 위한 나눔실천 협약

청주가경노인복지관, 저소득층 생활면의 중점에 노력

청주가경노인복지관(정은경 관장)과 로타리 3740지구 청주 목련로타리 클럽이 업무협약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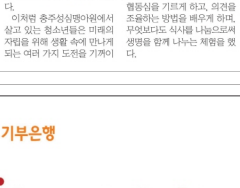
청주가경노인복지관(정은경 관장)과 청주시 3740지구 청주 목련로타리 클럽은 7월 26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생활면에 와 복지를 위한 국제 로타리 3740지구 청주 목련로타리 클럽과 업무협약을 진행하였다.

이번 협약서은 지역의 위기 및 취약어르신 3가구에 300만원 상담의 밑반찬지원과 봉사활동을 위해 진행되었다.

협약식에 참석한 목련로타리클럽 김원자 회장은 "어려운 상황에 계신 어르신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희원들과 함께 우리의 건강한 발달향상과 부모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빛을 찾아 떠나는 세상속으로 7탄 '삼시세끼'

충주성심맹아원, 시각장애 청소년에 사회 적응 도움


충주성심맹아원 입소자들이 음식을 만들고 있다.

시각장애인 생활시설인 충주성심맹아원은 매년 여행 "빛을 찾아 떠나는 세상속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있다.

'세상속으로'는 약시부터 전맹까지 다양한 시각장애를 지닌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만나게 될 갖가지 장애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기획된 연속 프로그램이다.

2006년 여름, 충주에서 강릉까지의 국토순례를 시작으로, 제주도 올레길 충주, 산악단 유띠도 능촌활동, 충주에서 부산까지 자전거 종주, 자갈자욕 라이프를 지향한 농촌 삼시세끼 그리고 지리산 둘레길 종주에 이어 올해는 세상속으로 7탄 '삼시세끼' 프로그램이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었다.

올해 삼시세끼 프로그램 참가자는 대부분 청소년들로 지난 3월부터 총 9차례의 사전 심습을 통해 직접 식재료를 구입하고, 촉각으로 재료들을 꼼꼼하게 탐색하며, 음성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조리법을 배우고, 실제 조리 도구를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었다.(사진)

삼시세끼 프로그램이 짧은의 일정을 소화할 무렵의 "오픈 하우스"는 감동 그 자체였다.

현장에서 알맞이 끝난하는 교사들 이모에 충주성심맹아원의 한 가족으로서 응원하는 많은 선생님들과 뫼소자 선배들을 저녁식사에 초대한 것이다.

삼시세끼 프로그램을 마침 때까지 함께한 교사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참가자들이 식재료를 촉각으로 인지하고 요리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자세히 설명하며 기다려주는 친절한 동반자와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충주성심맹아원에서 삼고 있는 청소년들은 미래의 자립을 위해 생활 속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도전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다.

'삼시세끼'라는 말처럼 우리가 하루를 살기 위해 직접 만들고 함께 나누는 한 끼의 식사가 행동심을 기르게 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며, 무엇보다도 식사를 나눔으로써 생명을 함께 나누는 체험을 했다.

청주서원시니어클럽, 노인치매예방 파수꾼 역할

치매예방 노노케어사업 '인기'

청주서원시니어클럽(권장 이란희)은 서원보건소치매안심센터와 업무 협약을 통해 참여자 어르신들에게 치매예방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특히 2일 노노케어사업(은빛도우미) 참여자들이 교육에 참석하였는데 치매예방방법, 치매선별검사가 실시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서원시니어클럽에서 실시하는 치매교육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전문적인 강사들이 파견되어 진행되는 만큼 어르신들의 신뢰도 및 만족도가 높다.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과 본인의 치매 진행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있다.

은빛도우미는 "노노케어로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을 보살펴는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이다. 교육에 참석했던 어르신들은 "오늘 검사를 통해 치매가 아닌게 확인된 것같아 기분이 좋다" 며 다른 교육보다 관심이 많았다고 호평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하게 된 서원시니어클럽은 앞으로도 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할 뿐 아니라 노인치매예방의 파수꾼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청주의료원, 지역아동센터 건강검진 지원

봉명아동센터 등 500명 대상

청주의료원이 8월 한달 동안 봉명지역아동센터 등 20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5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공의료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원단을 통해 신청을 받아 보건교육과 아동 건강검진과 진료비 지원, B형 간염 등 예방접종, 기초검진,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 등을 지원한다.

의료원은 공공의료팀에서 사전 점수와 신청을 받아 아동 건강검사를 연중 추진하고 있다.

손병관 원장은 "청주의료원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무료기초검진, 의료지원 등 공공의료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무더위쉼터' 개소

청주노인복지센터(소장 김성우 이사장 신부)는 한동안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하고 있어 지난 3일, 화양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더위쉼터'를 개소하였다.

'찾아가는 무더위쉼터'란 홀로 계시고 건강이 좋지 않아 인근 경로당 등 무더위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차로 모시고 와서 낮 동안 쉴 공간을 마련해준다.

보건복지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이제 봉사도 저축하시고
이자로 돌봄 받으세요!

※봉사분야 : 어르신 말벗, 상담, 가사지원, 주거환경개선

제천 사단법인 충북지역복지개발회 653-5025 청주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265-5305

자활기업으로 2만여 개 창출

■ 보건복지부, 청년 취·창업 지원 포함한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발표

■ 빈곤층 일자리 확대, 소득 재분배 및 계층 이동이 가능한 환경 조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20일 청년 취·창업 지원 방안 등 5가지 대책이 포함된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자활기업은 자활사업단 과정을 거쳐 참여자가 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임이 스스로 설립하여 만든 기업이다. (자활근로사업단(1001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근로빈곤층의 자립의지 · 역량 고양을 위하여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 취 · 창업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약 4만 명의 참여자가 2,400여개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중)

전국에 1,100여개(17년 12월 기준)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청소 ·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과 돌봄서비스 등의 분야에 종사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참여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하나이다.

〈 자활기업 현황(17년 12월 기준) 〉

▶ (유형) 개인사업자 65%,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순으로 총 1,092개 기업운영

▶ (지원) 수급자가 구성원의 1/3 이상기업에 사업자금 융자, 한시적 인건비 지원

▶ (업종) 청소(24%), 집수리(17%), 돌봄(15%), 폐자원 · 음식물재활용 등

▶ (매출액) 전체 매출액 1,682억 원(기업당 1억3000만원) 수준

▶ (고용) 고용은 1만 1029명으로 기업당 10명 수준, 차상위 · 수급자 3,489명 고용 중

그동안 자활사업은 자활근로 ·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취업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이번 대책은 종전의 창업 전(前)단 단계 지원에서 탈피하여, 창업과 시장에서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빈곤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확대하고, 소득 재분배와 저소득층의 계층 이동이 가능한 환경 이룰 위해, 2022년까지 자활기업수를 현재 1,100개에서 2,100개로, 총 고용수를 1만 1000명에서 3만 1500명으로, 그리고 자활기업 종사자 중 청년 고용비율을 3%에서 10%증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대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 취 · 창업 지원 강화 : 자활근로 사업단 · 자활장려금

청년층 생계수급자 15만여 명 등 상대적으로 근로의욕이 저조한 취약계층 청년층의 취 ·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 자활근로 사업단을 올해 하반기에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카페, 인테리어, 애견사업 등 창업중이 선호하는 업종을 중점 지원한다.

선호업종은 설문조사를 통해 카페 · 제과 요식업 17%, 복지 · 돌봄 10%, 디자인 · 집수리 8% 순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 청년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및 창업지원 개요〉

▶ (대상) 자활근로사업 신규참여 또는 참여기간 2년 이내인 만18~34세 청년

▶ (업종) 요식업, 문화, 스포츠, 수공몰 · 유통 등 청년선호 업종 중심

▶(과정) 심리적 지원 · 사회적응 스킬훈련(1년차), 기술훈련, 사업단 운영(2 · 3년차)

▶(지원) 사업준비금(최대 3천만원), 근로사업비(30%)를 50%로 확대, 창업보상

이 과정을 위해 자활근로사업비의 운용 자율성을 높이고 (30%→50%)* 최대 3,000만 원의 사업 개발비를 별도 지원하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구직 중인 저소득 청년과 일손이 부족한 자활기업간 원활한 매칭을 위해 수급자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5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한 취업청년에게는 2019년부터 도입될 자활장려금(자활근로소득의 30% 소득공제)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활기업 문호 개방 및 규모화 지원

보다 많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자활기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단과 정부 사업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운영 중인 자활기업은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자활기업은 사회복지제도의 하나로 설립되다보니 구성원의 1/3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로 고용하도록 제한하여 왔다.

2019년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여 1/3(수급자:1/5)로 제한을 완화하여 자활기업 참여자 유지를 더 쉽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자활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집수리 · 간병사업 등)을 자활기업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도시재생 등의 사업에도 자활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평균 고용인원이 10명 내외에 불과한 자활기업의 고용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 자활용업종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화와 규모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의 효과와 자활기업의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유지하기 위해 일자리 중심의 사회형자활기업과 당사자의 탈수급 등 자활을 중심으로 하는 자립형자활기업으로 구분한다. 더불어 인증제, 명단공표제를 도입하여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자활사업 참여절차 개편 및 참여자 역량 강화

자활사업 참여와 진입 과정에서의 복잡한 절차를, 참여자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참여자 훈련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보장한다. 종전에는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를 주로 '취업권로'로 유도하여 왔다.

앞으로는 '즉시 취업'과 '중장기적인 취 · 창업 준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의지나 가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근로사업 참여를 위한 평가도 현재 근로능력(국민연금공단), 자활역량(지자체), 취업준비도(고용복지+센터), 자립역량(지역자활센터)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이를 점진적으로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9년부터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급여를 올해보다 최대 28%이상 대폭 인상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자활사업을 활한 실질적인 자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층 등 자활기업 참여자를 위해 자활연수원 에 직능 · 경영 · 마케팅 등의 과정을 신설해 자활기업 창업과 정은 불편 운영과정까지 지원할 수 있는 교육 · 훈련과정을 구축한다.

자활기업 지원 기반(인프라) 개편

현재 자활사업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중앙자활센터와 14개의 광역자활센터, 250여개의 지역자활센터 등의 조직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먼저, 중앙자활센터(연수원 포함)과 광역자활센터를 (가칭) 한국자활복지기업원으로 위탁제를 통합하여, 공공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지원, 창여자에 대한 정보화 사업과 자활기금에 대한 운용심의 지원, 인력 교육훈련 등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자산형성지원사업, 자활사업단 운영 뿐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전환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18년 6월, 9개 지역자활센터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중) 이를 통해 원활한 예비 자활기업 육성과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협력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자활기금 적극 지원 체계 마련

전국 233개 지자체에 4,000억 원 가까이 적립되어 있는 자활기금은 조성 취지에 맞춰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활용하는 환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현재 자활기금은 기금소실 우려와 까다로운 규정과 절차 등으로 자활현장의 실제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지자체에 4,000억 원 가까이 적립되어 있는 자활기금은 조성 취지에 맞춰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활용하는 환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현재 자활기금은 기금소실 우려와 까다로운 규정과 절차 등으로 자활현장의 실제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지자체에 자활기금 기업집행을 독려하는 한편, 중앙자활센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요에 따라 기금심의를 해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활기금을 임의적으로 폐지하여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쌓게 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기금의 폐지와 오남용을 제한한다.

동시에 신용보증기금과의 상호 협약을 통하여 자활기업에 대한 자활기금의 융자보증지원을 좀더 강화하여 지자체와 자활기업의 적극적인 기금활용에 대한 인정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방석래 자립지원과장은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으로 조건부과 유예자 등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여 자활사업 및 자활기업 참여자를 확대하는 한편, 참여자의 여건에 적합한 인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계속간 소득 재분배를 향상시켜 포용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하면서 "이번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❶ 근로능력 저소득층의 자활경로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경로는 취업성공패키지, 자활근로, 자산형성사업, 그리고 자활기업 취 · 창업으로 나누어집.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의지가 있는 조건부 수급자 · 일반 실업급여 대상자로 직업훈련에 초점(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성공우선, 내일배움카드, 진단경로 설정, 개별훈련수단 월평균 290만4000원을 지원)

㉡ 자활근로는 근로능력이 취약한 참여자에게 복합적인 사회편리를 통한 지역사회와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는 프로그램 제공

㉢저소득층이 전세금, 창업 등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자산형성 사업은 지원대상의 특성에 따라 4가지로 구분 실시 중

㉣자활기업은 성공적인 자활근로사업단이 독립하여 시장에 진입하거나,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협력하여 신규 설립할 수 있는 기업 형태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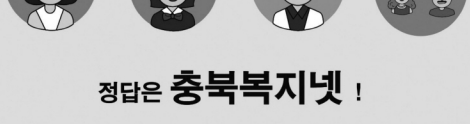
참고❷ 자활기업 지원 사용("18년 기준)

구 분	지원내용 및 조건	재원
자활기업 창업시설	▪ 자활근로사업단 계좌채집금의 60% 가치 시설기능 ▪ 자활기업 전용 인원에 따라 금액 결정 ※ 2인이상(70%)이내 1인(40%)이내, 1인이상(60%)이내	매출 적립금
	▪ 전세자금, 창업창업료 등은 센터(광역)에 관리위탁, 현금성 지원을 제외한 사실 및 처리는 보장기관 상이함 가져 자활기업 영위의 적정 지원 기능	
사업자금 융자	▪ 자활기업 당 2억 원 내 지원 ▪ 년 기치 4주 규모융통성(분 또는 감은 기간 내 일시상환, 소정심의 연 30%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이율	자활기금
전세임대 임대	▪ 자활기업 당 2억 원(하지 지원 ▪ 년 임는 전 (단위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연장 기능) 고정금리 연 3.0% 이내	자활기금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 자활기업의 일반대출기관은 공무원 대여받은 사업자금대 기업 오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간의 금리차이 보전해주는 5% 범위 내 ▪ 이차보전율 : 금융기관 대출이율 – 기금 대여이자율	자활기금
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컨설팅 지원사업과 지원	지방시민 활성화지원금 또는 자활기금
기업설비비	▪ 인정 후 3년이 경과한 '지원 대상 자활기업', 최대 5천만원 까지	자활기금
시설보강비	▪ 단순 비품 구입 제외, 시설보강 및 인테리어 등 소요정 지원 한도200만 원 ▪ 인정 후 3년이 경과한 '지원 대상 자활기업', 최대 3천만원 까지 ▪ 단순 비품 구입 제외, 시설보강 및 인테리어 등 소요정 지원 한도200만 원	자활기금 자활기금
한시적 인건비	▪ 수급 참여자 6개월 단위의 최대 6회 시장진입형 자활공모 기한수업 실무자 · 월차수당 및 상비 지원 ※ ~2년(기치) : 100%, 2년~5년 : 50%	자활근로 사업비
	▪ 미수급 참여자 인정 후 6개월 동안 시장진입형 자활공모 기한수업 실무자 · 월차수당 및 상비 지원 ※ 초기 3개월 : 100%, 이후 3개월 : 50%	자활근로 사업단 수익 외자금
	▪ 근로기간 6개월 단위로 최대로 자활기업별 월 20만원 한도 내 지원기업부담 4대 보험료 포함	자활기금
	※ 제한조건 : 인지활기업 자활기업 내 신청기업(수급자)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는 자원봉사활 지속 충족하는 한 신청기업(수급자)유한 전해에 대해 지원 불가	–

출처 보건복지부

충북

내게 꼭 맞는 사회복지정보를 한눈에!



www.043w.or.kr

정답은 충북복지넷 !

충북복지넷

칼럼 Column

사회서비스도 품질관리 경영이 필요합니다

김 관 성
사단법인 충북자폐복지개발원 대표이사

사회서비스 도입 이후 10여년의 시간이 지났다. 급격히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국가는 민간위탁과 일부 서비스 분야의 시장화방식을 선택하였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양적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서비스 품질 저하, 제공인력 저우개선의 필요성 등 다양한 문제점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학계와 실천현장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바쁘게 달려가고 있는지? 급속한 양적성장으로 공공성 상까지 약화시키면서 얻고자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문점이 생긴다.

나는 한달에 한번 열세월을 하는데 주로 미용실을 이용한다. 처음에는 점근성이 좋은 집과 변호사 미용실을 이용하다가 서비스 품질과 가격만족도 등 나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곳으로 옮겼다. 지금은 항상 그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 선택하고 구매를 한다. 즉, 이때 지불하는 비용은 서비스 선택권에 따른 소비자의 욕이다.

주변을 살펴보면 이렇듯 소비자의 선택권에 맞추려고 최선을 다하는 매장들이 상공하는 모습을 보곤 한다. 하지만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전이 되출되는 매장도 종종 접한다. 시장은 참 무서운 곳이다.

사회서비스도 마찬가지다. 급속하게 달려온 사회서비스의 도입과정부터 양적성장을 살펴보면 결국 일자리창출과 민간중심의 화대에 목표를 두고 진행되었다. 서비스 제공기관 설립용이, 운영규제 완화 등의 혜택도 받았다. 설립된 제공기관들은 위에서 언급한 미용실처럼 시장 속에서 서비스품질과 가격만족도 등 소비자의 선택권에 맞추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제공기관도 있다.

하지만 시장경쟁에 대한 대처 미흡,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생하기 어려운 영세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의 역할을 살펴보면 소극적 형태의 관리감독과 재정적 지원으로 일관하다가 평가,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 형태의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군구별 지원 복족으로 인해 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이미 폐업을 했거나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도 사실이다.

대한민국 복지공공성은 흔한기이때 항상 길을 헤매고 있다고 생각한다. 복지공공성 보다는 민간에 의존한 시장경쟁이 나아, 있었기 때문에 진작에 없어져 버렸어 지금에 없어지지 못하고 계속 걸어온 일이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할아오는 소진과 무기력함과 변화속에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부디, 내 인생을 걸어도 좋을 만큼 행복한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현장에서 쭉 오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누군가 내게 좋은 선임이었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던 것처럼, 제가 누군가에게 그래줄 수 있는 좋은 선임이자 동료,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또 어떤심을에게도 든든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 일이 천방이 없다니 좋은가
없다니 많은 부와 명예를 가져다줄 것인가
하는 일은 생각이 아니
내 인생을 걸어도 좋을 만큼
행복한 일인가에 답할 수 있는 것을
나는 꿈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광익 '비상' 중에서

칼럼니스트를 모집합니다.

* 사회복지 이슈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길 원하시는 분은 전화(☎043-234-0840~2)로 또는 이메일(jcacsww@chol.com)로 문의 바랍니다.

현장의 목소리

"나를 위한 바램"

황 대 옥
가경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2013년 2월 졸업 후, 그해 5월 청주가경노인복지관에 입사하였습니다.

학교를 떠나 세상의 첫걸음을 시작한 저에게 주어진 처음 업무는,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일, 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건강과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새내기 사회복지사였던 저에게는, 모든 것이 처음이어서 막중하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생각해보면, 운전, 행정서류, 서비스 제공 등 어느 것 하나 잘하지 못했고 모든 것이 서툴렀던 저에게 하나하나 잘 가르쳐 주신 선임들, 적보다 연적 입사해있던 친구가 있었기에 해낼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저의 미숙함에도 자리를 지켜주시고, "잘한다" 격려해주시는 어르신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갓스쿨 해를 맞이하면서 저희 복지시설을 맞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찾아보면서 상담과 밑반찬제공, 월요라인 물품들을 연계해드릴 때 고마움과 힘들에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고,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했고, '아 정말...사회복지사 참 멋진 직업이구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을 한구석에는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한 부담감, 만만함과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경험도 많이 없었고, 또 주변 자원많도 많지 않았기에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때에도 같이 있었던 선임들이 정말 많은 의지가 되었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갓스쿨을 넘어서면서 기관의 시설안전관리와 홍보 등 행정파트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기관에서 하는 업무들이 학교에서의 배움 이상의 첫걸이 일이 있었지만, 시설파트의 경우는 더 그러 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지침 등에 의거해서 관리는 하는 것이었지만,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서 전기, 가스, 소방, 전기 등 다양한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참 생소했던 것 같습니다. 관련된 교육도 이수하고, 해당업체를 통해 배우기도하며 불안한 또 정치 적응해가는 저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작했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작에 없어지지 못하고 계속 걸어온 일이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할아가는 소진과 무기력함과 변화속에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디, 내 인생을 걸어도 좋을 만큼 행복한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현장에서 쭉 오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누군가 내게 좋은 선임이었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던 것처럼, 제가 누군가에게 그래줄 수 있는 좋은 선임이자 동료,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또 어떤심을에게도 든든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정신건강

나의 마음은 과연 건강한가

연 현 진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독자 여러분! 폭염에 어떻게 지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연일 기온이 37℃, 38도~ 40도를 육박하고 있으니 32~33도에서 저는 에어컨은 물론 선풍기 없이도 지내기도 합니다. 물론 32~33도 에서 더운 날인데 우나 기온이 높다보니 이건~~ 뭐 좀 비웃 수 있는는 거지요. 지난 집합에서 날씨가 더워지면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들은 전기요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 드렸는데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고, 이제 해비다 더 더워질 것이고 20년 후에는 여름이 5개월이 된다는 뉴스를 보고는 "문일이구"는 마음의 소리가 너무 크게 입으로 나오고 말았답니다.

최근 라이나 생명의 모기업이시고나 그룹에서 23개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인 14,000명을 대상으로 "주관적인 웰빙 지수"를 조사한 결과 23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스트레스지수(최근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는 한국이 87%로 23개국평균(69%)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위인은 일(40%), 돈 문제(33%), 가족(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스트레스가 결정적인 원인이되는 직장장애, 공황장애, 강박장애 등 기분-불안장애에 환자 수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현대인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조급함! 한 눈을 팔아도 급세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초조함 일 것입니다. 첨단 기술로 연결된 포장된 편리 안에서 나 자신은 점점 효려집니다. 이런 시점에서 나의 마음은 과연 건강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착한 태풍은 오랜나? 하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지만 태풍은커녕 빗줄기 소리도 감감입니다. 더운 날은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분들에게 약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환자와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운 날에는 정신과 약을 먹지 않는 일반인도 어지러움, 기립성저혈압 등 탈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에게 탈수 증상은 주로 어지러움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입니다. 앉이 갖고 있는 저혈압 작용에 더는 날씨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탈수로 인하여 어지러움이 더해지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탈수는 기분 조절약의 혈중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의 필림이나 뿟뿟하지는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신과 약은 함을 적게 나오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는 몸이 더울 때 많이 식혀주는 효과를 감소시켜 결과 우리 몸에서 마른 열이 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정신과 약을 먹는 분들은 더위에 노출되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평상시처럼 활동을 해도 괴 심한 열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수분을 공급할 때 일반 맹물보다는 스포츠 음료나 맹물1리터에 소금을 조금 타서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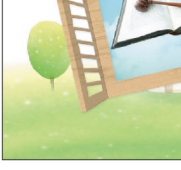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분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혀은 몸을 만져보니 드럽다면 빠르게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 때 억지로 물을 마시면 안됩니다.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먹게 하면 기도로 넘어가 호흡을 방해합니다. 이 때는 옆에 물을 뿜게 해줌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이 나는 정신과 약 안먹는데 ~~ 무슨" 하시는 분은 상식으로 읽으셔요. 또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더라도 폭염에 다양한 온열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은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정작 증가하였기에 본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대부분이 정신건강이 위험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중 10%이상은 치료를 받고 있기에 폭염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특별히 더 건강관리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무료 법률홈닥터 사업 안내



법률홈닥터제도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법조인이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서비스 제공대상	도움 받을수 있는 분야	법률서비스 제공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법교육, 구조업인과 법률문서작성 및 소송수임 없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저연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관계 및 임금, 채권 및 채무, 상속 및 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입니다.	원할만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가 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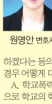
서비스 신청은

시 간 :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전 화 : 043)238-0843 / 이메일 : wma7259@naver.com
사무실 :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법률홈닥터

법무부 · 충청북도 ·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 달의 법률상식

학교폭력 발생시 대처방법



원영만 변호사

Q. 저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4살 청소년입니다. 최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선배들이 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자 선배들은 저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부모 또는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학내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장에게 요청하며, 교장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 경찰서 등에 수사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14세 이상(일반적으로 중학교 2학년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지역사회봉사단

종이접기협회 청주상당봉사단 "어르신들께 행복 선물했어요"

현양복지재단 창원 재능기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한국종이접기협회 청주상당지회봉사단(단장 이종숙)은 지난 7월 27일 충북현양복지재단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월 조리개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한국종이접기협회 청주상당지회봉사단은 2015년부터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한국종이접기협회 청주상당지회 박현주 단원은 "종이접기를 통해 어르신들의 인지발달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봉사활동을 진행하겠다."라고 전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0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위촉 관련 문의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epcoxxw@chol.com)을 통해 가능하다.

복지정보 제공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2018년 하반기 '타이어나눔' 사업 공고

- 신청대상
  - 업무용으로 9~15인승 미만의 승합차를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및 사회복지기관
  - 업무용으로 경차(1,000cc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및 사회복지기관
- 지원품종 : 타이어 4개 교체 및 얼라인먼트 서비스, 차량 경정비
- 지원규모 : 총 600개 기관 내외
- 지원일정 : 8/1~31일 신청접수(한국타이어나눔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참고 : hankooktirefoundation.or.kr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 2018 제1회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따뜻한동행 공모사업 모집 공고

- 지원대상
  - 장애인 일자리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학생(팀)이리
  - 장애인 일자리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는 (예비)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소셜벤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자활기업
- 지원내용
  - 2개월 선발, 총 상금 500만원 내에서 신청 금액 고려하여 차등 지원
  - 기업 CEO와의 1:1 멘토링 멘토링
  - 사업 성과에 따른 추가 사업비 지원(가능)
  - 우수 사업에 대한 후속 지분 투자 연계(가능)
- 접수기간 : 2018.7.31.~ 2018.9.9. 17:00까지
- 접수방법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 참고 : www.walktogether.or.kr/app/app.php?pktype=view&idx=2335&code=notice&cp=36&sp=2&app=bbs

[아주배경정소년지원센터 무지개청소년센터] 현대자동차 함께하는 "드림드림 프로젝트"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및 내용
1. 맞춤형 상담지원 : 체류, 한국어교육, 학교 진학, 한국생활 등 정보관련 상담지원
   - 대상 : 9~24세 이주배경청소년
2. 심리치료비 지원 : 심리치료전문기관 연계, 진행내용 지속 관리
   - 대상 : 9~24세 이주배경청소년
3. 가족상담 지원 : 가족 내 지지체계 구축을 통한 심리치료 효과성 증대
   - 대상 : 가족상담이 필요한 9~19세 이주배경청소년 및 그 가족
4. 집단상담 지원 : 집단 역동성 활용을 통한 심리치료 효과성 증대
   - 대상 : 9~19세 이주배경청소년을 포함한 집단
   - 신청기간: ~19년 4월 (수시 접수 가능)※ 예산집행현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개별상담, 가족상담): 의뢰서(외뢰인 서명 필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치료기관 소견서 및 심리검사결과지(해당자만)
     - 집단상담 지원 : 의뢰서(외뢰인 서명 필수), 프로그램 계획서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 팩스 발송 (E-mail : datalkdatalk@rainbowyouth.or.kr, Fax : 02-733-7580)
   - 문의 : 통합지원팀 070-7826-1571, 070-7826-1537
   - 참고 : www.rainbowyouth.or.kr

[보건복지부] "각광 없는 노동" 이른신 일깨웠어요! 10기지

1. 9월부터 기초연금 2천 원 인상(월급 4천원)
   저소득 노인들의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위해 현재 3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올해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해 30만원으로 인상
2.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할 최대 1만 1천 원 감면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은 이동통신요금을 월 최대 1만 1천 원까지 감면 혜택,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에게 월 1만 1천 원 한도로 이동통신요금이 감면되며 청구된 이용료(부가세 별도)가 2만 2천 원 이만이면 50% 감면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요금감면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
3.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수급대상 확대(10월 시행)
   하위계층의 주거급여 수급률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짐.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는 15일부터 9월 28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사전 신청
4. 노인일자리 확대 : 활동수당 인상
   활동수당은 17년 8월부터 월 27만 원으로 증가하고 노인 일자리 도한 22년까지 80만 개로 증가할 예정 · 노인 일자리 사업도 대폭 증원, 올해는 군단 · 거제 · 봉평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 산업 위기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 내년부터는 올해 대비 80만개 이상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해 60만 개 일자리를 지원, 학업지도 · 장애인 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개를 신설하고, 기존 공익활동 보다 최대 2배의 활동60시간 · 수당(54만원) 보장해 노후 소득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
5.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치매서비스 제공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어르신들에게 일대일 맞춤형 상담, 치매 검진 ·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 · 상담 · 가족지원 · 검진비 · 진료비 · 약제비를 지원하고 중증치매질환자의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최대 60% 수준에서 10%로 낮아짐
6.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비용 인하
   어르신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아졌으며, 금속상 완전틀니는 약 3천 원, 임플란트는 약 37만 원으로 대폭 낮아짐
7.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방법 급여 이용부터!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대상 및 경감률을 확대
8. 외래 장애체 의료급여(통네의원) 외래 진료 방문을 때 진료비 부담 경감
   65세 이상 노인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 등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급 때 본인이 내는 비용부담이 낮아짐
9.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2018년부터 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만 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
10. 독거어르신 돌봄 확대
    양부화인, 가사지원 등 독거어르신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

자원 봉사자 모집

▶ 원어민 일본어회화반 수업보조
관리센터 : 청주서원노인복지관
활동기간 : 8.1 ~ 12.20
전화번호 : 043-238-3786

▶ 스페인어 통역
관리센터 : 가톨릭대학 충북지역본부
활동기간 : 8.31 ~ 9.5
전화번호 : 043-715-9544

▶ 청한샘경축제 참여어 이동보조
관리센터 : 수정노인의집
활동기간 : 10.11 ~ 10.12
전화번호 : 043-218-3436

▶ 초등학생 및 중학생 학습지도
관리센터 : 한빛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 8.1 ~ 8.20
전화번호 : 043-855-1090

▶ 일반진찰보나스 배달
관리센터 :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활동기간 : 8.1 ~ 12.31
전화번호 : 043-544-5446

▶ 지적장애인 대상 건강체험 교육
관리센터 : 산
활동기간 : 8.1 ~ 12.31
전화번호 : 070-7209-3496

▶ 상담봉사
관리센터 : 남청주비전하우스
활동기간 : 8.1 ~ 8.31
전화번호 : 043-255-0407

▶ 이미용 봉사
관리센터 : 대신노인요양원
활동기간 : 8.1 ~ 12.31
전화번호 : 043-295-0825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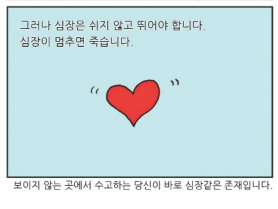
관리센터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요청인원 : 03명
활동기간 : 연중
전화번호 : 043-234-0840~2

*자료출처 : www.vms.or.kr

복/지/만/평

심장

이창신 www.bokmari.com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당신이 바로 심장같은 존재입니다.